

대만 돼지 구제역 피해 계속 확산

— 돼지·소·양·사슴 등 우제류 수출중단 조치 —

지난 3월 20일 대만정부가 서남북부 9개 현 20개 양돈장에서 돼지 구제역(발굽썩음병) 발생을 공식발표한 후 다각적인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밀수입된 육류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제역은 3월 27일 현재 동부 3개 현과 일부섬, 주요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산, 전체 사육마리수의 15%인 1백65만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1만7천마리가 폐사,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당국은 구제역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미감염 돼지와 소·양·사슴등 기타 우제류 가축을 격리하고 있다. 또 비상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4만마리 분 백신의 부족분을 긴급 수입중이지만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대만정부는 구제역발생 발표와 동시에 돼지를 포함한 소·양·사슴등 우제류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본·한국등 주요수출국에 이를 즉각 통보했다. 이 발표 직후 돼지 도매시장 경락값도 전날보다 61%나 떨어졌고 소비도 급격히 줄고 있다.

대만은 1913년과 24년 두번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이후 60년넘게 발병되지 않아 한국·일본과 함께 구제역 안전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이번 발생으로 최소 1년이상 돼지고기

수출이 어렵게 됐다.

대만산 돼지고기를 99%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돼지고기와 관련된 수출액은 96년 31억달러로 대만 전체 농산물수출의 20%를 점하는 중요품목이다.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의 41%를 차지하는 대만산 돼지고기 수출이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본 수입 돼지고기시장에서 미국·캐나다·유럽·양돈업계 등이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캐나다는 공급능력의 한계, 유럽은 먼거리 때문에 미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부는 국내 사슴사육농가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를 여행할때 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본회에 보내온 「구제역 발생국 농장방문 자제 협조 요청」 공문 내용이다.

구제역 발생국 농장방문 자제 해야

최근 대만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새끼 돼지 50여만두 폐사등 대만농업 전체 생산량의 21%인 32억4천만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동 전염병의 발생원인을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로 부터 소, 돼지, 양 및 그 생산물의 밀수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생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신발등에 묻어서도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회원사 및 회원들께서 중국, 대만, 동남아국가등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양돈장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만 돼지구제역 발생상황

- 최초 발생일자 추정 : '97.3.10. 3개 농장 1,570두
- '97.3.21. 현재 발생상황 47개농장 13,257두 감염 (5,000두 이상 폐사)
- 발생장소 : 대만 전지역 확산
- 경제적 피해액 추정 : 대만농업 전체 생산량의 21%인 미화 32억4천만달러
- 전염원추측 :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본토에서 쇠고기, 돼지고기가 밀수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 (대만정부)

2. 구제역이란 (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등 우제류 동물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악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 입과 발굽에 물집과 염증이 나타나며 열이나고 식욕부진, 유산등을 보임
- 공기나 고기, 뼈, 우유등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을 통해 급속히 전파됨
- 구제역은 중국, 베트남, 타이등 동남아 제국가 및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동물 및 축산물 수입금지
- 구제역 발생시 피해
 - ① WTO/SPS 및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발생국으로부터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 ② 국내 축산업 피해
 - 육류생산 25% 감소, 임신축 유산 약 25%, 우유생산 감소 50%

3. 주요 유입 경로

- 감염된 동물 및 축산물의 국내반입시 발

생우려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소뼈, 돼지뼈등

※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동물과 축산물은 검역을 실시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감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휴대밀반입 또는 공해상을 통한 감염동물 및 축산물의 국내 반입시 질병유입이 우려됨

4.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 건설교통부 : 발생지역 여행객 항공기·선박 탑승시 상대국에서 항공기 탑승시 관련물품 휴대반입 자제, 여행객 국내 도착전 구제역 홍보 방송실시
- 관세청 : 중국, 대만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 휴대 검역물 색출철저, 검역물 발견시 공항 주재 동물검역관에 인계철저
- 해양경찰청 : 공해상을 통하여 밀반입될 수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단속 강화 및 발견시 즉시 국립동물검역소에 통보

5. 기타

- 여행객대상 홍보물 (리후렛, 포스타, 안내방송 요지) 은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제작 관계기관 배포

사슴의 구제역 현황

구제역은 소와 같은 모든 우제류에 감염되는 무서운 병인데 아직 한국에는 오염지역이 아니다.

한때 미국에서 발병했으나 박멸작전 성공으로 퇴치되었으며 중국지역 사슴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록에서 실험한 바로는 소처럼 심한 구강과 발주위의 수포현상은 안 나타나고, 아주 가볍게 구강내에서만 수포가 보였을 뿐 다리를 절거나 침 (타액) 을 많이 흘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슴은 구제역에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